

“서울 이미 방역 뚫렸을수도... 전국 폐렴환자 전수 조사를”

인터뷰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방역망은 이미 뚫렸다.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은 인구가 많고, 교통 요지라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닮아있다. 감염자가 크게 늘지 않았던 지난 한달여간 사실상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도 점도 비슷하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서울에도 우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던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은 26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만났다. 천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으로 사스와 메르스 등의 감염증을 거친 풍부한 임상 경험은 물론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지난 한달여간 계속해서 이번 감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전국 폐렴환자 전수조사 필요”
천 교수는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해 코로나19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력이 강하고, 잠복기가 길며, 감염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도 전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특히 열이 없어도 폐렴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열로 감염자를 걸러내는 현재 방역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방역 골든타임 놓쳐 확산 지금부터 무증상 다수, 발열로 감별은 잘못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병원 늘면 의료공백, 확진자 지속 발생 초래 치료제 투여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천 교수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은 이미 시작됐다고 봤다.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지난 한달여간 방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증 확산은 이제 시작이고 다음달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렘데시비르와 같이 코로나19에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해 경증이 중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을 대구·경북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전국 폐렴환자의 전수조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천 교수는 “지금은 병원에서 폐렴환자의 검사를 의뢰해도 인력 부족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하는 사이 서울과 부산과 같은 나머지 대도시에서 확산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병동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이다. 현재 방역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코로나19는 폐렴 진행속도가 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후 확진이 이뤄지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는 병원이 늘면 의료공백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환자는 계속 새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고, 개학과 개강을 최대한 늦추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구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이동 억

시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열보다 호흡기 질환 살펴야”

천 교수는 감염 여부를 자가 진단하려면 발열보다는 호흡기 증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폐렴 여부를 판단하려면 엑스레이보다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해야 한다.

그는 “중국 사례를 보면 젊은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발열이 거의 없다. 열이 없어도 기침이 심하고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엔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 폐렴은 엑스레이로는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CT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면역력이 좋은 젊은 감염자들은 자각증세는 없지만 전염력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집 밖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로나19 극복에 힘 실는 기업들

마스크 15만장 기부 “힘내라 대구·경북”

한화-한화솔루션 취약계층 전달

한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은 26일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5만장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대구·경북지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공급한다.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기부하는 마

스크 15만장은 의료진과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 한화 계열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사업장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비치해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사옥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를 모니터링하고, 단체 행사 및 교육취소, 회식 등 불필요한 모임을 금하고 있다. 전직원 매일 체온 점검, 임신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권장 등을 통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대구·경북지점 1000곳 생필품 30% 할인”

세븐일레븐 생수·라면 등 10개 품목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일부 생필품 부족 현상 등으로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응원한다.

세븐일레븐은 27일부터 3월11일까지 2주간 이 지역 1000여 점포에서 주요 생필품 카테고리인 핵심 10개 상품들 20~30% 할인 판매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구매 니즈가 많아지고, 원거리 이동과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다.

아이시스 2 l (6입), 진라면 매운맛 (5입), 햇반 3번들, 오투기밥, 신선 대란 (20입), 스펀 클래식 200g, 3분 카레 매운맛, 대코 소프트 3겹 티슈 30롤, PB 참고소한 도시락 김 8입, 동원 라이트참치 등이다.

/김민지 기자 kmj@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해외여행 갈 때

보험은 ON

여행 갈 때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단 한번 가입으로 여행 전 간편하게 ON!

On-Off 해외여행보험

보험사 최초!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복잡한 서류

절차는 OFF

- 1 **가입은 한 번만**
안 바랄 때 미리 가입하고, 여행 갈 때마다 간편하게 ON!
- 2 **출국 전 언제 어디서나!**
집, 공항, 이륙 전 비행기, 어디서나 편리하게 ON!
- 3 **보장은 든든하게!**
각종 사고와 휴대용품 보장까지 든든하게 ON! (해당특약가입시)
- 4 **보험료는 가볍게!**
두번째 해외여행부터는 10% 할인!

* On-Off 해외여행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앱, 모바일(<https://m.nhfire.co.kr>) 및 전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지점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지급시 약관에 따라 지급액으로 지급되며 지급한도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통상항위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하는 분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통 예금 등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합계 상의 제1970호(2019.08.05)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www.nhfire.co.kr
1644-9000